빨리 핀 봄꽃 앞당긴 축제

온난화 영향 … 유달산꽃축제 등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해수욕장 개장도 한달 빠른 6월 2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봄꽃을 주제로 한 전남지역 축제 개최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또 서남해안 수온 상승에 따라 올해 전남지역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도 예년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목포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유달산 꽃축제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4월11일에 열렸던 축제로,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다.

벚꽃을 주제로 한 영암군 왕인문화축제도 지난해(4월5일~8일)에 비해 하루 빨리 열렸다. 2006년에 비해서는 4일이 앞당겨졌다. 덕분에 이번 왕인문화축제는 벚꽃 개화시기와 맞물리면서 관광객만 105만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는 작년과 같은 시기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렸다.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구례 산수유꽃 축제는 작년에 비해 하루 앞당겨졌으며, 3년 전에 비해서는 6일 정도가 빨라졌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의 꽃 축제가 앞당겨진 것은 봄꽃 개화시기가 전반적으로 6~8일 가량 빨라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최근 31년 동안 개나리는 7일, 진달래는 6일, 벚꽃은 8일 정도 개화일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 개장도 앞당겨지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6월2일께 전남지역 유명 해수욕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은 시기이긴 하지만 2007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남지역 해수욕장은 주로 7월 중순께 개장했다. 2년 사이에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무려 30~40일이 앞당겨진 셈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1965년~2007년까지 여수연안 수온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3년 동안 연평균 수온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앞당겼지만, 수온이나 기온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해수욕장 개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27.5도 "덥다, 더워!"

평년보다 9.9도 높아…초여름 날씨 다음주까지

연일 2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다음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평년 기온을 4~10도 웃도는 낮기온이 15일까지 이어지겠으며, 엷은 안개인 연무현상이 자주 발생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무려 9.9도 높은 27.5도를 기록했으며, ▲나주 27.9도 ▲고흥 24.9도 ▲해남 24.5도 ▲장흥 23.9도 ▲완도 22.9도를 나타냈다.

특히 순천은 낮최고기온이 27.7도를 기록해 기상관측 이래 4월 상순 기온으로는 최고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6월 상순 낮기온에 해당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올라온 고기압이 우리나라에서 정체된데다 맑고 건조한 날씨까지 맞물리면서 낮기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연무현상(시정거리 10㎞ 미만)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종일 탁한 시계(視界) 때문에 고온 속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스모그나 황사는 아니고, 비가 내린 지 오래돼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진데다 엷은 안개가 끼어 뿌옇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주말인 11일까지 연무현상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또 "10~13일은 밀물 때 바닷물 수위가 특히 높아지는 한사리인 만큼 침수 가능성이 큰 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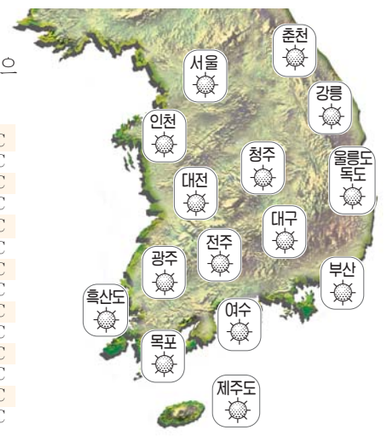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7분 / 해짐 19시 01분 — 달뜸 19시 53분 / 달짐 05시 58분

큰 일교차 감기조심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일교차가 크겠다.

광 주	맑음	10/27℃
목 포	맑음	9/21℃
여 수	맑음	12/21℃
완 도	맑음	10/24℃
구 례	맑음	5/28℃
해 남	맑음	5/24℃
장 흥	맑음	5/25℃
고 흥	맑음	7/25℃
순 천	맑음	10/26℃
영 광	맑음	5/23℃
진 도	맑음	6/23℃
전 주	맑음	8/26℃
남 원	맑음	4/28℃
흑산도	맑음	10/19℃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0.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0.5m

	밀물	썰물
목포	02:32 14:37	07:41 19:51
여수	09:17 21:48	03:12 15:1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날 씨						
최저/최고	10/27	11/25	11/23	12/22	10/20	7/17

대학가 'MT문화' 실속형으로 변화

'음주' 대신 전공실습·봉사활동

대학가 MT에 단골메뉴였던 '음주'가 사라지고, 봉사활동과 전공실습 등이 어우러진 실속형으로 바뀌고 있다.

조선대 무용과 80명의 학생들은 MT(2박3일) 첫 날 일정을 독거노인을 위한 김치담그기와 헌혈로 시작했다.

무용과 학생 80명은 9일 오전 광주 동구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원동좋은동네만들기' 회원 5명과 함께 절임배추 300포기로 햇김치를 담갔다. 이들의 정성이 담긴 햇김치 300포기는 동구 관내 경로당 40개소에 7포기씩 전달됐다.

이어 오후에는 참가 학생 전원이 헌혈에 참여했다.

윤석영 무용과 학생회장은 "선후배가 만나 정을 나누는 MT를 지역사회와 함께 정을 나누는 의미로 확대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직접 실천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을 찾아가 봉사하거나 연탄 나르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MT문화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와 뷰티미용학과도 최근 마친 MT를 '무알콜·전공실습형'으로 치러 눈길을 끌고 있다.

의상디자인학과 164명은 1박2일 동안 무음주 기본방침을 정하고, 조를 편성해 정해진 시간내에 의상작품을 완성하는 패션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뷰티무용학과 학생들도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 메이크업과 헤어 시술 발표회를 가졌다.

광주여대도 모든 학과 MT에서 음주를 없애고,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1대 1 멘토를 구성해 학교생활 적응 및 실질적인 학습지원을 강화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랑의 김치 버무려요" 조선대 무용과 학생들이 신입생 MT를 독거 노인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누기'로 시작했다. 2박3일 일정의 MT 첫날인 9일 학생들이 광주 동구환경관리사업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푸른길 공원에 '특허발명 장터'

광주 남구 10월까지

광주시 남구는 주민들의 발명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특허제품 개발업체에 홍보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23일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남구 주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특허발명 장터'를 열기로 했다.

오후 4시부터 4시간동안 열리는 발명장터에는 광주와 수도권에서 30여개의 특허제품 관련업체가 참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품원리를 설명하고, 제품에 대한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남구는 개장에 앞서 9일 오후 4시 특허제품 관련업체 20여곳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 장터를 열었다. 23일에는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장터 운영에 들어간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학력 높이기 올인의 해

전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 역량 집중

전남도교육청이 올해를 '학력제고 올인(All in)의 해'로 정하고, 학력미달 학생 제로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8일부터 18일간 도내 22개 시·군 교육청을 돌며 정책 간담회를 갖고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기초·기본 학력 정착을 위해 교실수업 개선, 학력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강구, 전남교육의 특징인 소규모 학급의 교육 효과 극대화 등에 나선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전원학교, 개별학습, 특기적성 교육 강화 등 작은 학교가 경쟁력을 갖는 전남형 교육의 새 모델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전남은 초등학교 451곳, 중학교, 250곳, 고등학교 153곳 등 모두 854곳 중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가 43.4%인 371곳에 이르고 있다.

전국 최고의 학생 1인당 장서 보유율을 바탕으로 좋은 책 60권 읽기, 수업 시작 전 10분과 방과후 20분 책읽기 등 '1020운동'도 추진된다.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확보율을 자랑하는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실용중심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와 전 영어교사의 원어민화도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이번 순회 간담회에는 일선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 2천200여명이 참여, 220여건의 각종 건의와 토의가 이뤄졌으며, 교육여건 개선, 인사관리, 교육복지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김장환 도교육감은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면서 "전남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활용해 전남형 교육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순천서 중학생 9명 식중독 의심 증세

순천 모 중학교 학생 9명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순천 모 중학교 학생 9명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배탈·설사증세 등을 보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